국내
마감시황

2026.3.13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불확실성 고조되며 혼조세

모즈타바 하메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 선언

바이오, 원전, 게임주 상대적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487.24pt (-1.72%)	1,152.96pt (+0.40%)	812.93pt (-1.76%)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95.70 원 (+7.2 원)	3.7010% (+5.2bp)	6,655.25pt (-0.33%)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4,539 억	-1,316 억	-7,124 억
외국인	-14,720 억	-1,081 억	-556 억
기관	-10,314 억	+2,756 억	+8,081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 이후 첫 공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불확실성이 짙은 시장 상황에서도 코스닥 액티브 ETF를 통한 수급 기대감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KOSPI는 1.72% 내렸고, KOSDAQ은 0.40%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2.9조원, KOSDAQ은 약 14.3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1.5조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건설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 또한 KOSPI에서 1조원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기계/장비와 IT 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에 원전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수급과 학회 모멘텀에 힘입어 바이오주가 반등했습니다. 그 외, 전력기기, 게임, 엔터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조선, 방산, 재생에너지 관련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흑연 음극재 고관세를 폐기하면서 반사 수혜 기대감 소멸로 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리가켐바이오(+9.42%), 엔씨소프트(+7.78%), 현대건설(+5.59%)이 올랐고, 포스코퓨처엠(-9.31%), 한화솔루션(-8.11%), LIG넥스원(-4.24%)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